

사 설

여름 휴가철이 가까워지면서 교계 신문에 실에서 주관하는 수련회 모집 광고가 눈에 띄고, 각 단체에서는 하계 수련회 장소를 물색하는 어려운 소리가 들려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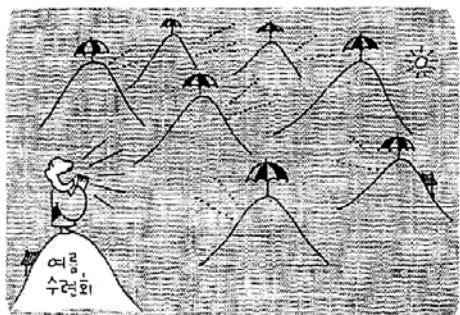
잡시나 스님들의 수행생활을 답습하여 마음의 해탈을 염원하고 부처님께 의지하여 보겠다는 중생들을 대비심으로 수습하여 주어야 하리라 본다. 그리하여 짧은 수련기간이나 철저한 지도로 깨달음의 길로 가도록 책적 깊게 주셨으면 한다.

시한부 출가로 삶의 활기를

해주고 안온한 휴식을 갖도록 하는 법문을 활짝 열어 놓은 곳이다. 수련회는 사찰에서 신심을 다지며 스님들의 수행생활을 잠시라도 닮아보는 참으로 좋은 기회이다.

근년 송광사에서 단기출가형식의 수련회들을 계획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통도사나 해인사에서도 소정의 과정으로 수련회를 모집하여, 포교의 효과를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

현대 만평



알찬 준비하세요

◇사찰·신행단체 여름수련법회 일정

Table with 4 columns: 주최 (Organizer), 기간 (Date), 대상 (Target Audience), 문의처 (Contact Info). Lists various Buddhist temples and their summer retreat schedules.

얼린 마당

여름 수련회

현장스님



나날이 바쁘게만 돌아가는 현대사 속에서 메달라가는 자신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신심있는 불자들의 각종 수련회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반기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행주와 여류동정 모두가 하나의 수행과정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일상생활에서도 그대로 실천할 수 있게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늘 실천할 수 있는 울곧은 신행 길잡이

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여름 수련회는 방학과 휴가를 이용, 많은 어린이 청소년 직장인 불자들이 참여하고 있어 수련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

바로 여름수련회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된다. 딱딱한 강좌의 연속보다는 불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기도하는 실질적 방법, 즉 마음 다스리는 법과 열불, 참선, 교리강좌 등이 적절히 배분되어야 한다.

이양길원장



사찰에서 주관하는 여름수련회 일정이 속속 결정되고 있다. 금년에는 해인사 송광사 지자사 등의 대규모 사찰뿐 아니라 대원사 등 지역 사찰에서도 수련회회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 결과부좌를 해보는 것도 시한부 출가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수련회에서는 간단한 개인도구만을 요구한다. 장대한 품을 법회장까지 가져오지 않도록 하자.

알음알이로만 접한 불법 몸으로 체험을

왔다. 산사에서 도반과 함께 시한부 출가정신으로 수행에 임한다는 것은 재가불자로서 더할나위 없는 좋은 인연이 될 것이다.

확언이다. 세속의 생활속에 알음알이로만 접해온 불법을 몸으로 체험하는 자리이다. 불법을 체험하는 자리에 가족은 물론 이웃과 함께 한다면 더 또한 기쁜 일이 아닐까는가. 가까운 곳에서 도반을 찾아 뜻깊은 사찰수련법회가 되도록 해보자.

시론

최후 보루는 존재해야 마땅

정치 권력은, 특히 정당한 권력의 정당한 행사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한 국가사회에서의 정치권력은 그 권력의 행사에 지나친 점이 없는가를 항상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가. 그들은 자신들의 힘에 도취하여, 기록권을 가진 자로서의 위치에서 판단하는 습성에 젖어버린 것은 아닌가. 또 자신들의 막강한 힘에 도취하여 자신들의 판단으로 국민 대중과 정치 권력을 마음대로 이끌 수 있고, 또 이끌어도 된다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법에 앞서 존중되어야

종교는 인간의 가장 고귀한 심성의 발원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한 종교적인 판단은 가장 순수한 인류애에 입각한 판단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공권력에 의한 법집행이 정당함을 묻는 시금석이어서이다.



성태용 (건국대 교수·철학)

본디 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정당화시키는 만능의 잣대 아니다. 그것은 본디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에 대한 규정이라는 성격과 지니고 있다.

이런 권력과 법의 성격에 비추어 이번 조계사와 명동성당의 경찰력 투입은 어떤 쪽에 해당되는 것일까. 언론과 정권의 절묘한 협력의 결과, 과연 한국의 법집행 수호에 긍정적이 될 만한 일을 이루어 내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만능의 잣대 아니다

우선 사안을 보자. 한국통신이 갖는 특수한 위치를 감안한다 해도 한국통신 노선의 불법행위라는 '이사회장 폐기, 회의진행 방해'라는 것이 조계사와 명동성당이 갖는 상징성을 무너뜨려 가면 서서히 법을 집행할 사안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기성의 언론들은 무책임하게, 또 교묘한 어투로 그 경찰력 투입을 부추겼고 또 투입 이후에는 그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 언젠부터 한국의 언론들이 이렇게 약자의 소리를 철저치 못 무시하는 오만함을 지니게 되었는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뜻을 그렇게 쉽게 무시할만큼 국민 대중의 폭넓은 지지를 받는 '정통성'을 지닌 정부라고 자만하는 것인가?

물론 종교 교단의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것을 경찰력 투입이라는 가장 최후의 방법으로서 처리해서는 안된다. 지속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 종교 교단이 스스로 주치를 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주어야 한다.

이런 일은 일과성의 일로 의미가 축소되어서는 안된다. 지금의 정권은 이미 불교계에 맞서려 올바르지 못한 공권력을 행사했다는 흠을 지니고 있다. 뒤이어 터진 이번 사태는 그러한 잘못들이 근본적으로 정치와 종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근본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A large advertisement for the '2008 Summer Buddhist Retreat' (2008 여름수련회) organized by the Buddhist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It includes a list of participating temples and organizations, a list of speakers and their topic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registration.